

2022년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 결선 작품 발표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
<https://www.pooliscool.org/news/2022/6/6/new-model-for-outdoor-swimming>
<https://www.mynewsdesk.com/se/lund/pressreleases/hage-i-brunnshoeg-faar-lunds-stadsbyggnadspris-3162701>
<https://sportapilsdarzi.lv/en/about>
<https://www.okra.nl/projecten/catharijnesingel/>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을 놓고 우열을 가릴 다섯 개 결선작이 선정되었다. 유럽 도시 공공공간상은 공공 공간을 창조하거나 복구, 개선한 우수 프로젝트를 시상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바르셀로나 현대 문화센터(Center of Contemporary Culture of Barcelona: CCCB)에서 격년으로 수여하고 있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야외 수영장: Flow

‘Flow’는 벨기에 브뤼셀에 조성된 작은 야외 수영장으로, 비영리단체 ‘POOL IS COOL’의 프로젝트다. 이 야외 수영장은 주민들이 모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설계와 설치에 50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였고, 주민 워크숍이나 커뮤니티 행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도착한 공공공간: Hage

스웨덴 룬드 외곽, 아직 개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땅 위에 ‘Hage’가 들어섰다. 부지의 소유주인 룬드 대성당 측은 룬드의 도시화와 확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후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는 쉼터이자 공공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고 프로젝트 의도를 밝혔다. 공간은 2m가 넘는 벽돌 벽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폐공장의 철거 자재를 재활용한 것이다. 열린 공간에는 벤치와 테이블이 자리하고, 안뜰에는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Flow를 즐기는 시민들

출처: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검색일: 2022.9.13.)



Hage 전경



Sporta pils dārzi의 이동형 원예 박스

출처: <https://www.publicspace.org/the-prize/-/edition/2022/finalists-only>(검색일: 2022.9.13.)



복원 후 생 세르낭 대성당 광장



Catharijnesingel 복원 후

자연과 커뮤니티가 만나는 정원: Sporta pils dārzi

‘Sporta pils dārzi’는 도시의 미이용 부지에 시민들이 나서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한 사례다. 라트비아의 리가 시민들이 활동가들과 결성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2020년 정원 설계 시에는 150명 이상의 시민이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설계에 참여하였다. 정원 전체 공간은 주민들이 분양 받는 식재공간과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포켓공간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정원 공간은 모두 지상층에 조성하고 이동식 원예 박스를 다양한 높이로 제공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역사와 공공성의 회복: 생 세르낭 대성당 광장 복원 프로젝트

프랑스 툴루즈의 생 세르낭 대성당(Saint Sernin)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도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건축물이다. 2017년부터 대성당 주변 주차장을 녹지와 보행자 산책로를 갖춘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봄 완료되었다. 이 광장은 녹지가 부족한 툴루즈 지역에 공공을 위한 정원이 되어주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보행로를 포장하는 등 기존 공간과 조화와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복원 모델: Catharijnesingel 복원 프로젝트

네덜란드어로 ‘sin’gel’은 도시에 방어 목적으로 조성한 운하를 뜻한다. Catharijnesingel 복원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역사적인 운하 공간을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이자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도로를 제거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했고, 카누 등 다양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식재되는 식물, 포장재 등을 세심하게 선택했는데, 심사위원단은 하천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해 도시의 질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